

[기획] >> 3면  
강사법

[심층] >> 4면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국제] >> 6면  
독립선언서

[특집] >> 12면  
3.1운동 100주년 그 의미



## 글로벌캠퍼스, 1년 만에 총학생회 탄생하다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에 새로운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앞으로 1년간 학교와 학우들의 소통의 창구가 될 '리:액션'을 만나왔다.

▶ 4면에서 계속  
글·사진 윤아영 기자 97yuna0@hufs.ac.kr

###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기숙사 글로벌홀 완공



▲글로벌홀

지난 1월 23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기숙사 글로벌홀이 사용 승인을 받았다. 글로벌홀은 우리학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숙사는 4층부터 16층까지로 운영되고 있다. 입사생

들은 △입실 기간(6개월 신청자 우선)△신청 일자통화 거리△직전학기 성적 기준을 선 받했으며 이번 해 총 388명이 입사했다.

글로벌홀에는 △옥상 공영△작은 도서관△창고△휴게실 등의 편의 시설들이 마련돼 있다. 또한 최신 에어컨 및 축열식 온돌 난방 시스템이 들어졌고 △인터넷 1기가 광랜 및 와이파이 △건물 자동관리 시스템△400만 화소 고화질 CCTV△3단계 출입 통제 시스템이 도입됐다.

글로벌홀 운영팀장은 “글로벌홀 완공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지방에서 온 학생들의 편리한 생활과 학습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학교 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김지수 기자 97didu@hufs.ac.kr

### 우리학교 QS 세계대학평가 순위 상승

지난달 26일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2019 세계대학평가 학과별 순위'를 발표했다.

대학 순위는 △인문학△자연과학△공학 등 5개의 학문 분야와 48개 전공 분야별로 500위까지로 평가된다. 평가 기준은 △학계 평가△졸업생 평판도△논문 피인용 수△H지수이다. 학계 평가는 각국의 우수한 학자를 선출해 진행되며 '졸업생 평판도'의 경우 전 세계 기업 인사처에 각 대학의 평판을 조사해 나타난다. '논문 피인용 수'는 지난 5년간 대학별 발표된 논문이 얼마나 인용됐는가를 따져 계산한다. 'H지수'는 교수 논문이 학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자료다.

현대언어학 (Modern Languages) 세계 순위				언어학 (Linguistics) 세계 순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서울대 11	서울대 18	서울대 19	서울대 34	서울대 30	서울대 38		
고려대 24	고려대 38	고려대 41	고려대 56	고려대 57	고려대 63		
성균관대 29	한국외대 45	한국외대 45	한국외대 92	한국외대 86	한국외대 91		
연세대 34	연세대 59	연세대 60	경희대 156	경희대 144	경희대 166		
한양대 42	성균관대 67	성균관대 63	서강대 176	서강대 189	서강대 191		
한양대 87	한양대 120	한양대 98	부산대 222	부산대 280	국내 대학 없음		
서강대 91	경희대 138	이화여대 163					
이화여대 128	서강대 158	경희대 178					
경희대 137	이화여대 160	서강대 210					
홍익대 211	서울시립대 173	서울시립대 221					

영어영문학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세계 순위				경제학 (Economics & Econometrics) 세계 순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고려대 83	서울대 95	서울대 83	서울대 40	서울대 46	고려대 61		
서울대 85	고려대 112	고려대 95	연세대 80	연세대 107	연세대 115		
연세대 111	연세대 138	연세대 123	성균관대 118	성균관대 115	서강대 195		
성균관대 126	한국외대 164	한국외대 152	한양대 275	서강대 209	한양대 208		
한국외대 150	성균관대 188	서강대 177	경희대 336	경희대 416	부산대 340		
서강대 162	서강대 220	성균관대 198	홍익대 340	홍익대 451	중앙대 365		
한양대 201	한양대 224	한양대 214	이화여대 391	부산대 470	이화여대 391		
경희대 223	경희대 268	이화여대 214	한국외대 400*	한국외대 492			

▲QS 세계대학평가 학과별 순위

우리학교는 'QS 2019 세계대학평가'에서 인문 분야 주제인 △현대언어학(Modern Languages) △언어학(Linguistics) △영어영문학(English Language & Literature)과 사회과학 분야인 경제학(Economics & Econometrics)이 순위권에 올랐다. 현대언어학은 45위에 자리하며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이어 국내 대학 중 3위에 등극했다. 영어영문학 또한 지난해 대비 12계단 상승한 152위에 올랐으며 경제학은 500위권 내로 재진입했다. 한편 언어학의 경우 지난해 대비 5계단 하락한 91위에 그쳤다.

최재영 기자 98wodud@hufs.ac.kr

## 한제읍서

쾌적하고 풍요로운 역사·문화·생태 도시  
살고 싶은 농촌과 살맛나는 도시가 어우러지는 곳  
누구도 차별받지 않으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여기는 시민이 행복한 제주시입니다.

**탐라국입춘굿놀이**  
2019. 2. 2.(토) ~ 2. 4.(월)  
제주목관아 및 제주시 일원

**제주들불축제**  
2019. 2. 7.(목) ~ 2. 10.(일)  
새별마을 일원

**제주왕벚꽃축제**  
2019. 3. 29.(금) ~ 4. 7.(일)  
전농로, 애월읍 장전리 등 제주시 일원

**우도소라축제**  
2019. 4월 중  
우도면 일대

**방선문축제**  
2019. 5. 4.(토) ~ 5. 5.(일)  
오라읍 방선문계곡 일원

**용연선상음악회**  
2019. 6. 1.(토)  
용연계곡

**한여름밤의 예술축제**  
2019. 7월 말  
제주해변관광광

**산지건축제**  
2019. 9월 중  
산지선 일원(용진2~북성2)

**제주밭담축제**  
2019. 9월 중  
제주밭담테마공원

**탐라문화제**  
2019. 10. 9.(수) ~ 10. 13.(일) 예정  
제주도 일원

**추자도참굴비축제**  
2019. 9월 중  
추자면 일원

**고마로아문화축제**  
2019. 10. 11.(금) ~ 10. 12.(토)  
고마로 및 신산공원 일원

**제주음식박람회**  
2019. 10월 중  
제주시 민복시타운 일원

**제주해녀축제**  
2019. 9. 20.(금) ~ 9. 22.(일)  
귀좌읍 세화리 해녀박물관

**제주강어대축제**  
2019. 10. 12.(토) ~ 10. 13.(일)  
제주시 민복시타운 일원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우리학교 총동문회, 신년 모임 및 자랑스러운 외대인상 시상식 개최

지난달 15일 우리학교 총동문회는 '2019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동문회 신년 모임'과 '자랑스러운 외대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32대 총동문회장으로는 민동석(서양어·노어 73) 씨가 선출됐다. 민동석 당선인은 현재 31대 동문회장이며 △외교통상부 제 2차관 △아중동지역경제협력대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자랑스러운 외대인상은 민경중(중국어·중국어 8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이 수상했다. 민경중 사무총장은 현재 △우리학교 중국언어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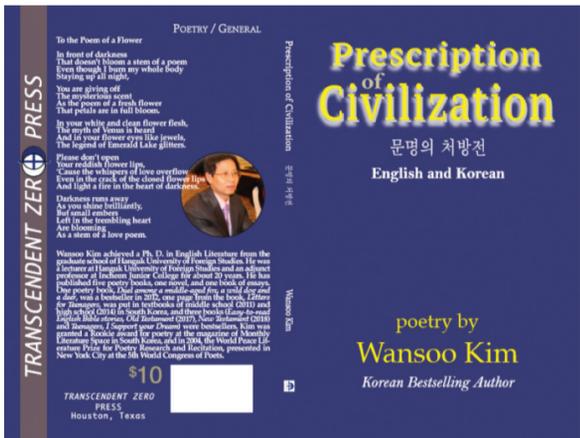
학부 초빙교수 △무등학교 교감 △한국방송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제24회 한국방송대상 앵커상(2004) △한국외대 언론인상(2010)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상 △한국온라인저널리즘어워드 공로상(2014)을 받았다. 자랑스러운 외대교수상은 김현택(서양어·노어 74) 우리학교 대외부총장이 받았다. 김현택 대외부총장은 △(사)한러문화예술협회 부회장 △러시아 푸시킨문학상 집행위원회 집행위원 △우리학교 대외부총장을 역임하며 2012년에 한·러 문화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러시아 정부 수여 푸시킨 메달

을 수훈했다. 그 외에도 각각 △장인택(서양어·스페인어 76) 전 도미니카공화국 한인회장 △최철식(상경·무역 90) 금융인은 특별공로상을 △이희옥(서양어·스칸어 74) 방송인 △정필모(아시아·아랍어 77) KBS 부사장 △곽태석(서양어·노어 77) 교수는 공로상을 △유지원(중국어·중국어 11) 씨는 프론티어상을 수상했다.

김지수 기자 97didu@hufs.ac.kr

## 김완수 우리학교 영어 대학원 박사 시집 출간

## 우리학교 학군단 임관축하 및 승급·입단식



▲(문명의 처방전) Prescription of Civilization 표지

이번 해 1월 우리학교 대학원 동문 김완수 씨의 시집 <문명의 처방전(Prescription of Civilization)>이 미국 시장에서 출간됐다.

<문명의 처방전(Prescription of Civilization)>의 목적은 △병든 세계 △과학과 예술 △문명과 신 △대한민국 △정치와 다양한 관점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는

"20년 이상 시를 써왔지만 국제적인 독자들을 위해 시집을 출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현대 한국 문학 전통이나 현재 국제 정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시집 안에서 큰 흥미를 느낄 것 같다"라고 밝혔다.

김완수 씨는 우리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며 본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또 우리학교에서 영미문학개론과 교양영어를 20여 년 강의한 이력이 있다. 그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직후 시인으로 등단해 한국문학회원으로 20여 년 시작(詩) 활동을 했으며 2004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The 5th World Congress of Poets for Poetry Research and Recitation에서 세계평화문학상(World Peace literature Prize)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재영 기자 98wodud@hufs.ac.kr



▲ 이번 달 4일 우리학교 ROTC 임관·승급·입단식 단체사진

이번 달 4일 오전 11시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우리학교 ROTC △57기 임관식 △58기 승급식 △59기 입단식이 개최됐다. 행사는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의 주관으로 △표창 수여 △임관·승급·입단 신고 △계급장·학년장 수여 △입단자 선서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본 식에는 △임관예정자 37명 △승급자 40명 △입단자 37명 △가족 약 50명으로 대략 165명이 참석했다.

양성영 학군단장은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고 이 자리에 능률하게 있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롭다"며 학군단에 대한 자부심과 격려를 전했다. 이날 자리엔 우리학교 ROTC 동문회의 △동문회장 △상임부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이 참석해 학군단의 △임관 △승급 △입단을 축하했다.

김지수 기자 97didu@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제53대 총학생회장단 재선거 선거 일정 공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31조 및 제32조에 의거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한국외국어대학교 제53대 총학생회장단 재선거 일정을 공고합니다.

**제31조(선거 방법)**

- 총학생회장단 선거 기간은 선거 공고, 추천 및 등록 기간, 선거운동 기간, 투표일, 개표일로 구성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추천 및 등록 기간을 2월 이상 3월 이하, 선거운동 기간을 10일 이상 12일 이내, 투표일을 2월 초 선거 당일일 정한다.
- 투표일은 2월 초에 정한다.
- 중앙운영위원회 선거 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2조(선거 공고)**

중앙운영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 10일 전에 다음 각 조항을 명시한 선거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된 선거 일정
- 후보 등록 마감 시간
-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과일·응원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한국외국어대학교 제53대 총학생회장단 재선거 일정**

추천 및 등록 기간	3월 18일 06시 ~ 3월 20일 20시 (9일)
후보 등록 마감 시간	3월 20일 20시
선거 운동 기간	3월 21일 06시 ~ 4월 1일 23시 (12일)
투표일	4월 2일 (화) 및 4월 3일 (수) / 당일 08시 30분 ~ 18시 30분
개표일	4월 3일 투표 마감 후 1시간 뒤

**후보등록에 필요한 서류·과일 종류**

<b>예비후보자 등록</b> (후보자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선거 공고 이후 후보자 추천 기사 인터넷 다음 주 후에 해당되는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
1. 총학생회장 예비후보자 및 부총학생회장 예비후보자 신청인의 재학증명서 각 1부	1. '입후보자' 등록명지(「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
2. 중앙운영위원회 예비후보자 및 부총학생회장 예비후보자 신청인의 이력서 각 1부	2. 원화영 10분(1 이상)의 추천서(「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
3. 예비후보자 등록예치금 100,000원	3. 선거운동본부장의 재학 또는 총학증명서 1부
- (의정후보자 등록)의 경우, 후보자 추천서 제출을 포함, 수 있다.	4. 공스타원 사진 2매(의정으로 제출)
	5. 중앙선거관(서, 2매 이내, 파일로 제출)
	6. 핵심 선거 공약(응원구호·선거운동본부명(타일로 제출))

**한국외국어대학교 제52대 중앙운영위원회**

##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단 재선거 실시 공고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서 제53대 총학생회장단 재선거를 실시한다. 지난 해 말 서울캠퍼스 53대 총학생회 후보에 아무도 나서지 않아 이번 달 중순부터 재선거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영위) 측 공고에 따르면 추천 및 등록은 이번 달 18일 06시부터 20일 20시까지 총 9일간 이어지며, 선거 운동 기간은 같은 달 21일 06시부터 다음 달 1일 자정까지 총 12일간 주어진다. 투표는 다음 달 2일(화요일)과 3일(수요일) 이틀간 오

전 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진행되며 개표는 투표마감 후 1시간 후부터 실시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선거 공고 이후 후보자 추천 기사 전까지 △총학생회장 예비후보자 및 부총학생회장 예비후보자 신청인의 재학 증명서 각 1부 △총학생회장 예비후보자 및 부총학생회장 예비후보자 신청인의 이력서 각 1부 △예비후보자 등록 예치금 금 100,000원(전액 반환)을 중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입후보자 등록 원서(「사무처리세칙」에

따라 중선관위가 제작한 서식) 이하 중선관위 서식)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추천서(중선관위 서식) △선거운동본부장의 재학 또는 휴학 증명서 1부 △공스타원 사진 2매 △출마 소견문(A4 2매 이내) △핵심 선거 공약·옴 구호·선거운동본부명을 중선관위 측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제52대 총학생회장단 푸름은 이번 달 17일을 끝으로 그 임기를 마친다.

김초영 기자 96\_ivana@hufs.ac.kr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올린 제53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재선거 공고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는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 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춘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 2019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 학군사관(ROTC) 모집안내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

**지원자격**

- 연령 : 임관일 기준(만20~27세 이하인 남·여)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60기(남·여) :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
- 학군 61기(남·여) :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 2학년 재학생)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 2019년 3월 1일~3월 31일
- 방법 :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지원자 접수]란 이용
- 일정
  - 1차 필기고사 : 4.6(토), 합격자 발표 : 4.25(목)
  - 2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 4.27(토)~5.17(금), 합격자 발표 : 6. 13(목)
  - 3차 신원조사, 신체검사 : 6.17(월)~7.19(금), 최종 합격자 발표 : 8. 16(금)
- 문의처 : 육군학생군사학교 043-830-6031, 지원대학 학군단

# 논란의 '강사법' 우리학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이번 해 8월 소위 강사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에 학사개편 바람이 불었다. 강사법은 고등교육법 제 14조2항에 명시돼 있는데 이는 시간강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임교수와 함께 정식 교원으로 인정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오히려 대학이 고용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시간강사를 대거 해고하거나 개설강의 수를 줄이는 등의 역풍이 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시간강사들

은 '강사법 시행 중단'을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간강사 채용 비율이 높은 우리학교도 위 상황을 피해갈 수 없다. 우리학교는 강사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교양강좌 감소에 재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봤다.

### ◆시간강사법이 무엇인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제14조2항(이하 강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서정민 조선대학교 시간강사가 열악한 처우와 임용비리를 폭로하고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특히, △교원 지위 1년 보장△재임용 절차 3년 보장△방학 중 임금지급 △퇴직금 지원△직업 건강보험 의무가입으로 총 6가지 주요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법으로 임용기간을 보장함에 따라 그동안 난제로 지적받은 시간강사의 불안정적인 수익에 대한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 보고 있다.

기대와 달리 강사법은 '시간강사 대량 해고'라는 예상치 못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대학들은 법안이 시행되는 8월에 앞서 시간강사를 줄이기 위해 각종 편법을 사용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고려대△부산대 △시립대 등 주요 사립대학에서 강사와 강의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강사법 대비 문건'이 유출됐다. 해고 위기에 직면한 시간강사들의 반발 역시 컸다. 지난달 24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대학 강사들의 네트워크 '본노한 강사들이 강사 대량 해고 중단을 위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대학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거나 개설 과목을 줄이는 등 원래 취지와는 반대로 시간 강사의 임용 자체를 위협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정부는 시간강사 정규직 전환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학의 꿈수와 시간강사들의 거센 반발에 대응해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는 금년도 교육부 예산 74조 9163억 원을 확정했는데 이 중 시간강사 처우개선비는 288억 원이었다. 교육부는 "지원금은 대학 재정 규모와 전임교원 비율을 파악해 차등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간강사의 교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금이 나온 것은 이번 해가 처음이다. 그러나 지원금이라는 정부의 대안이 대학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우리학교 시간강사 임용 규정

우리학교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나뉜다. 전임교원은 정년트랙과 특성화트랙으로 구분된다. 전임교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로 구성되는데 부교수와 조교수는 근무년한과 교육 및 연구 업적을 고려해 교수로 승진 혹은 재임용 된다. 다만 강의중심교수와 연구중심교수가 속한 특성화트랙은 전임교원으로 인정받으나 △보조직임명△직급수당△교육진흥△조기정년 등은 보장 받지 못한다. 이번 달 20일 공개된 우리학교 이사회 동정 회의록에 따르면 이번 해 9월부터 적용될 특성화 전임교원 임용 규정이 개정됐다. 강의중심교수 재임용 심사 기준 중 수업평점이 3.8점에서 0.2점 더해진 4.0점으로 상향된 되면서 강의중심교수의 재임용은 수업 평점이 4.0점을 넘어야만 한다.

비전임교원에 속하는 우리학교 시간 강사는 강의 시간당 일정한 임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임금이 불안정하다. 지난해 11월 30일 우리학교 시간강사규정의 6개의 세칙이 개정됐고 5개의 세칙이 신설됐다. 특히, 강사법에 따라 시간강사의 강의 시간이 주당 9시간으로 제한됐고 강사료는 담당 강의시수를 기준으로 산정해 되, 시간당 강사료에 관한 결정권은 총장이 갖게 됐다.

### ◆강사법에 우리학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지난해 전국 185개 대학교 중 우리학교의 시간강사

### 제14조의2(강사)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18.12.18.>

1.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로서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1.27., 2018.12.18.>

1. 국립·공립 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 제10조,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4제7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제2항, 제26조, 제43조,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48조.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파면·해임”은 “면직”으로 보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정할 때에는”은 “제26조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으로 보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 중 “조교”는 “강사”로 보고, 같은 법 제43조제2항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제1호

2. 사립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사립학교법」 제23조제2항-제3항, 제53조의2제1항-제2항-제9항, 제53조의4제1항, 제54조, 제54조의3제6항 본문, 제56조 및 제60조.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6항 본문 중 “파면·해임”은 “면직”으로 보며, 같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제1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④ 강사에게는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8.>

⑤ 강사에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신설 2018.12.18.>

[본조신설 2012.1.26.]

비율은 1위였다. 교육 전문 신문 '베리타스 알파'에 따르면 우리학교 전체 교원 중 43.3%가 시간강사로 드러났다. 이는 2위를 기록한 연세대와 4.7% 차이 난다. 수도권 상위 17개 대학 중 시간강사 채용 비율이 40%를 넘은 것은 우리학교뿐이었고 시간강사들이 담당하는 학점은 총 8569.6점이다. 우리학교 비전임교원 채용 중 특이한 점은 초빙교수의 비율이다. 초빙교수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 월급제로 계약한 교수로 방학 중에도 월급을 받는다는 점에서 시간강사와 다르다.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시간강사에 비해 우리학교의 초빙교수는 0.7%에 그쳤다.

강사법이 우리학교 교원 임용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이번 달 7일 이사회 동정은 강사법 시행에 따른 대책이 담긴 회의록을 공개했다. 회의록을 통해 우리학교는 “강사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강사법에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강사제도개선위원회가 밝힌 명확한 계획은 없어 차후 행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조국현 서울캠퍼스 전 교무처장은 “우리학교가 강사법 시행으로 발생하는 재정 부담과 강사의 처우 개선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며 동시에 “△갑작스런 강사의 감축 및 해지△강의 규모 축소△대형 강좌확대△전임 시수 확대와 같은 무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해 우리학교에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를 합해 총 271개의 교양강좌가 폐지됐다. 특히 글로벌캠퍼스 교양 강좌는 176개가 줄었다. 이는 수강신청 경쟁률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져 학생들이 곤혹을 치렀다. 안정민(아시아·미인어 18) 씨는 “전학기에 자리가 많이 남았던 교양도 이번에는 거의 다 찰서 잡지

못했다”며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병호 우리학교 학사총합지원팀장은 “전임 교원들이 담당했던 진로설계 및 개발 세미나 강좌가 폐지돼 강좌가 줄었다”며 강사법의 영향으로 교양강의 수가 감소한 것은 전혀 아님을 강조했다.

교양개설강좌수	서울캠퍼스	글로벌캠퍼스	소계
2018-2학기	714	718	1432
2019-1학기	619	542	1161

### ◆다른 학교는 강사법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연대는 우리학교 다음으로 시간강사 채용 비율이 가장 높다. 교육 전문 신문 '베리타스 알파'에 따르면 연세대 시간강사 채용 비율은 38.6%로 수도권 상위 17개 대학 중 2위를 차지했다. 이번 해 연세대가 고용하고 있는 시간강사 수는 신촌캠퍼스와 원주캠퍼스를 합해 2천여 명이다. 그러나 대학 내 개편으로 2천여 명이 일 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번 해, 연세대가 선택교양 과목을 62% 가량 축소하면서 졸업이수학점을 채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기고 있다. 이에 연세대에선 '시간강사법 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세대 강사법 대책위)'가 결성됐다. 연세대 강사법 대책위는 △수강신청 피해 사례 조사△대자보 게시△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반대 서명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이들은 “학교가 선택교양과 대학영어를 폐지하는 등의 강의를 개편해 교육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며 학습권 침해를 주장했다.

### ◆결국 학습권과 연결된 강사법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지만 시간강사의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해줘야 하는 대학은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 결국 일부 서울 유수 대학들은 학사 개정이나 강의 몰아주기 등의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줄어드는 강사 수에 비해 학생 수는 유사하기 때문에 이는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학교 입학자 수는 3380명으로 2017년 입학자 수보다 14명이 증가했다. 결국 강의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학생들이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적은 수의 교원이 많은 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을 유지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인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다양성이 보장받지 못한다. 조국현 서울캠퍼스 전교무처장은 “강사들의 처우 개선과 그에 따른 양질의 교육은 곧바로 학생의 수업권과 연결돼 있다”며 수업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강사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강조했다.

강사법은 고등교육법 제14조2항에 명시돼 있는데 이는 시간강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임 교수와 함께 정식 교원으로 인정하는 법안이다.

지난해 11월 30일 우리학교 시간강사 규정의 6개의 세칙이 개정됐고 5개의 세칙이 신설됐다.

이번 해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를 합해 총 271개의 교양 강좌가 폐지됐다. 특히 글로벌캠퍼스 교양 강좌는 176개가 줄었다.

강사들의 처우개선과 그에 따른 양질의 교육은 곧바로 학생의 수업권과 연결돼 있다.

# 글로벌캠퍼스, 1년 만에 총학생회 탄생하다

지난 1년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체제로 운영되던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는 지난해 그 막을 내리고 새로운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제40대 총학

생회장단 '리:액션'의 한준혁(통번역·중국어 16)·최예림(공대·컴전 16)씨가 그 주인공이다. 앞으로 1년간 글캠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리:액션'을 만나봤다.

## ◆'리:액션'이 선출되기까지

지난해 11월, 글캠 제40대 총학생회장단 자리를 두고 기호 1번 '하모니'와 기호 2번 '리:액션'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두 후보는 같은 달 12일부터 23일 까지 10일간의 유세 기간을 거쳐 이틀간 투표를 진행했다. 초반엔 투표율이 저조해 투표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으나 마지막엔 총 투표율 50.6%를 기록하며 새로운 총학이 탄생했다.

## ◆'리:액션'을 만나다

**1. 1년 만에 총학생회가 선출됐습니다. 감회가 남다른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세요?**

**총학생회장(이하 회장) :** 이번 총학생회 당선은 학우분들의 학생 사회에 대한 관심과 보다 더 나은 학교가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이 투표로 이어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많은 분들의 기대가 크신 만큼 책임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임기 시작 후 일을 하며 시야가 넓어지니 문제 해결이 수월해졌습니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총학생회장(이하 부회장) :** 학우분들께서 '이제는 정말 총학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측도 총학이 들어섰으니 진정한 소통의 창이 열릴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내 첫 행사인 새내기 배움터를 치르고 나니 이제야 정말 총학이 됐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학우분들께서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2. 수많은 공약 중 최우선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회장 :** 최우선으로 이루고자 했던 공약 중 실제로 시행된 것은 대표적으로 '승차장 출발 잔여 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배차간격이 넓은 버스 출발 시간을 미리 알려드리고자 승차장에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공약이었는데 무사히 실행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부회장 :** 여성후보로서 '월경권 보장'을 우선으로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다양한 월경용품을 구비한 상태며 빠른 시일 안에 교내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이루고자 한 공약을 빠르게 선보일 수 있어 뿌듯합니다.

**3. '성적 알림 시스템'을 활성화하기로 하신 공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약 같은 경우 지난 학기 기말고사부터 서울캠퍼스와 동시에 시행이 됐는데, 혹시 학교에서 시행하기로 한 것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아닌가요?**

**회장 :** '성적 알림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양캠퍼스가 학교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을 공약으로 내건 당시엔 학교 측과 논의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를 확실하게 실행하고자 공약으로 걸었는데 생각보다 더 이르게 시행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학생 복지의 질이 향상된 것이므로 그 점에 대해선 총학으로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4. '총장 선출권'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회장 :** 총장 선출권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 1월 말 △교수협의회 △교직원노동조합△서울캠 총학에 총장 선출권을 위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직원노동조합과는 논의를 마쳤지만 서울캠 총학은 곧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라 다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구체적인 논의는 새로운 총학이 선출되면 이뤄질 것입니다. 교수협의회는 총장 선출권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때문에 조만간 찾아뵙고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이번 학기엔 총장 선출권의 윤곽을 잡는 게 목표입니다.

**5. 공약으로 학생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구성이 되며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회장 :** 현재 감사위원회의 전체적인 기틀을 다듬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회칙은 5월 중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를 통해 의결하고 2학기엔 정식으로 감사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입니다.

감사위원장은 학기 중 공고를 내려 지원자를 모집한 후 학운위 인준을 거쳐 선출할 것입니다. 물론 감사위원회가 학생회에 대한 건문이 좁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나 학생회 활동 경험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감사 진행은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나뉘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기감사는 매 학기 감사위원장이 공포하는 날로부터 2,30일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감사위원장은 모든 단과대학 혹은 학과의 영수증이나 회계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를 받고 문제가 있을 시 대표들에게 출석을 요구해 추가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할 것입니다. 특별감사의 경우 금전적 영역 외 학내 감사가 필요한 여러 사안에 대해 상시감사를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6. 현실적 상황들로 미루어 봤을 때 '광역버스 신 노선 유지'가 가능한가요?**

**회장 :** 지난해 저희는 우리학교-광주시 태전동-서울로 이어지는 노선을 구상했습니다. 총괄지원팀, 광주시청과 함께 삼자논의를 할 당시 광주시는 태전동의 교통 상황을 고려해 해당 노선을 추가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추가 논의를 위해 광주시청을 방문했을 때 부정적인 답을 들었습니다. 최근 광역버스는 가급적 우회노선이 아닌 직선노선을 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학교의 소재지가 용인시이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협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인시청과 논의할 예정이며 최적의 노선을 찾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책임지고 시도해 보려 합니다.

**7. MOU 체결의 진행 상황과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부회장 :** 새학기가 시작된 지금이 MOU에 대해 논의를 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MOU는 업체에게 우리학교가 우수한 학생과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장 :** 현재 학교 측에선 MOU 체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신속히 진로취업센터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학문적인 틀에 얽매지 않고 해당 모집 분야에 관심 있는 학우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하겠습니다.

**8. △공학관과 자연과학관의 리모델링 축구△스마트도서관 건립 축구△교양관과 도서관 화장실의 리모델링을 계획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을 구성하고 있나요?**

**회장 :** 이 공약에 대한 유일한 답은 국토부 정책 중 하나인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란 리모델링을 위해 국가에서 돈을 빌리는 것인데 이자가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학교는 이 사업으로 △어문학과 리모델링△인문경상관 리모델링△서울캠 스마트도서관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학교 측에선 글캠 스마트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기 안에 스마트도서관 건립 가능성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회장 :** 교양관과 도서관 화장실 리모델링은 예산 배정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으로는 모든 화장실 리모델링이 불가합니다. 우선 한 층 정도 공사를 시행해 방향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예산 확보를 위해 노

력하겠습니다.

**9. '서울-글로벌 합동 정기 학생총회'는 서울 쪽과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회장 :**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서울-글로벌 합동 정기 학생총회'는 2학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캠 측에선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캠 총학 보궐선거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차기 총학 선출 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10. 우리학교 설립자 김홍배 동상을 철거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사과를 요청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회장 :** 우선 무단으로 동상을 세운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에 때문에 확실한 사과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김홍배 박사가 친일인명사전에서 빠진 이유 △친일 선정 기준△동상 철거에 대해 구체적 자료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필요한 자료는 외부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아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며 조사 내용은 학우분들과 공유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11. 7+1 프로그램 지원자 수에 비해 정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를 어떻게 개선할 생각인가요?**

**부회장 :** 총지원이 많으면 그만큼 정원도 많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비용'을 조정하려 합니다. 지금까지는 파견학생 정원이 남는 학과가 부족한 학과로 잔여 여석을 남겨주거나 이마저도 양보하지 않는 학과가 존재했습니다. 체계적이지 않은 정원관리로 해외교류프로그램을 누리지 못하는 학우분들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각 학과의 실질적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상황에 맞게 정원을 재배할 예정입니다. 이후 절대적 정원의 증가 부분에 대해선 학교 측과 심도 있게 상의할 것입니다.

**12. 앞으로 어떤 총학생회가 되는 것이 목표인가요?**

**부회장 :** 무엇보다도 '친근한' 총학이 되고 싶습니다. 어디서든 열심히 뛰는 총학이 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총학이 되겠습니다.

**회장 :** 학우분들께서 학생회관을 지나가시다 필요한 것이 있으실 때 언제든지 편하게 총학실 문을 여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친근함을 넘어 긍정적으로 회자 되는 총학이었으면 합니다. 훗날 학우분들께서 '2019년 총학이 참 열심히 일했고 많은 것을 바꿨구나'라고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열심히 해야겠죠?(웃음)

## ◆'리:액션'에 대한 기대

새로운 총학의 출범에 글캠 총괄지원팀 김석중 팀장은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됐지만 총학이 학우들의 고민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 직원들 눈에도 보인다"며 "직원들 또한 함께 노력해 신뢰도를 높이고 발전하는 학교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학우들 또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최민수(인문·언어인지 16)씨는 "이젠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우리학교의 새로운 학내 문화 조성을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제연(통번역·영어 17)씨는 "1년 만에 총학이 구성된 만큼 다방면에서 활약하길 바란다"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총학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아영 기자 97yyuna0@hufs.ac.kr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2019년 하반기외국어교육과정

### ◆ 해외연수 그 이상의 효과

한국외대 외국어연수평가원의 외국어교육과정은 외국어 및 외국학 교육 전통에 실용성을 더한 국내 최고의 외국어 마스터 과정으로, 대학(원)생,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어교육과정으로는 말하기·듣기·쓰기·읽기를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20주 주간과정, 단기간 실용회화능력을 집중 향상시키는 10주 야간회화과정, 방학특설과정, FLEX 어학시험 대비과정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40개 이상의 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어학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기관 특성 및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어교육과정을 설계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기관 위탁 외국어교육과정 소개

교육특징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체, 공공기관 및 단체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교육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포르투갈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아랍어, 이란어 외
강사진	언어별 전공학과 전임교수, 외국어연수평가원 전임 교강사
절차	상담 → 교육모듈 개발 → 입교 → 교육 진행 → 평가 및 피드백
교육특전	교육과정 외 특별프로그램 제공(지역학 특강, 주임교수 튜터링) 원어민(한국외대 재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무료 제공 외국어능력평가 제공 기숙사 시설 이용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 ◆ 2019년도 하반기 교육일정

구분	과정명	개강시기	2019년 하반기 교육일정
주중과정	20주 주간과정	2월, 8월	08.05. - 12.20.
	방학특별과정	1월, 7월	07.16. - 07.31.
야간과정	10주 야간회화과정	8월	08.05. - 10.10.
	10주 야간회화과정	10월	10.14. - 12.19.
주말과정	14주 주말과정	2월, 8월	08.31. - 12.04.
	FLEX 대비과정	3월, 9월	09.21. - 12.28.
	평생교육원 통번역기초과정	3월, 8월	08.31. - 12.14.

\*과정별 상세일정 및 교육비는 홈페이지 참조(http://lltc.hufs.ac.kr)  
\*과대(생동문) 교육비 할인 제공 / 일부 과정에 한함

### ◆ 외국어교육 상담 및 문의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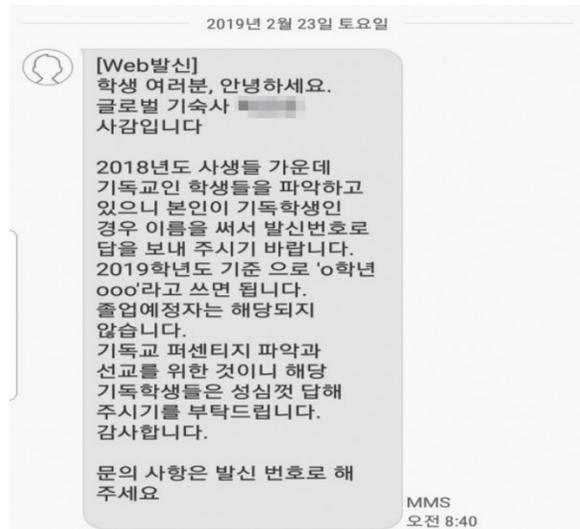
구분	연락처	이메일
주중 및 야간과정	02-2173-2515	fittc@hufs.ac.kr
주말과정	02-2173-2525	
기관 위탁 외국어교육과정	02-2173-2524	edulife@hufs.ac.kr
평생교육원 통번역기초과정	02-2173-2515, 3518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HANKYU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FOREIGN LANGUAGE TRAINING AND TESTING CENTER

# 무단으로 사용된 사생들의 개인정보, 이대로 관철은가?

## ◆글로벌캠퍼스 기숙사사감의 문자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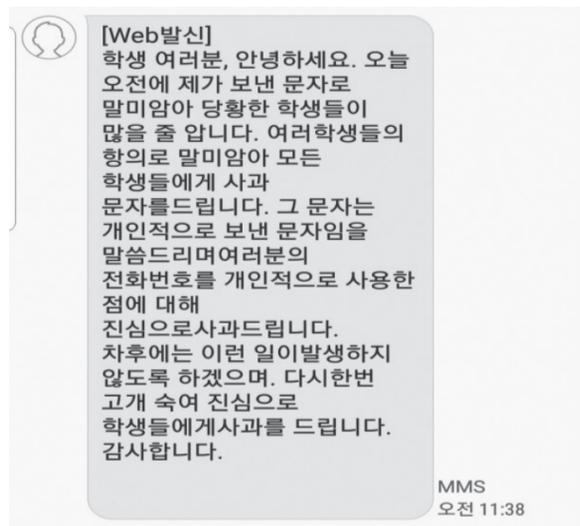
지난달 23일 오전 8시 40분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기숙사 사생들에게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다. 이는 당시 기숙사 사감이었던 박 00 사감(이하 박 사감)이 보낸 것으로 지난해 흡스돔에 거주한 사생 중 기독교인 학생을 파악하고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년과 이름을 보내라는 것이었다. 다음은 해당 문자 메시지의 전문이다.



▲ 박 사감이 보낸 첫 번째 문자 메시지

메시지를 받은 수많은 사생들은 우리학교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학교가 무단으로 사생들의 개인정보를 열람, 이용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메시지의 발송 목적이 지극히 사적이며 특정 종교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에브리타임 게시판의 익명의 글 작성자는 "기숙사 측에서 어떤 경로로 본인의 연락처와 정보를 알아냈는지 의아하다"고 의견을 표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사감은 첫 번째 메시지를 발송한지 약 3시간 후인 오전 11시 38분에 사생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한차례 더 발송했다. 앞서 보냈던 문자와 관련해 자초지종을 해명하고 사죄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은 해당 사감이 사생들에게 단체로 발송한 두 번째 메시지의 전문이다.



▲ 박 사감이 보낸 두 번째 문자 메시지

두 번째 문자 메시지에서 박 사감은 첫 번째 문자 메시지는 학교와는 상관없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보낸 것임을 밝혔고 전화번호 등 사생들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열람하고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 ◆학생들의 의견

박 사감의 문자를 받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먼저 안운빈(똥번역·마인어 15) 씨는 "이번 문자 메시지 사태는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기숙사 사감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본인의 종교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를 한 것은 심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설령 박 사감 본인에게 포교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독단적 판단으로 사생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은 분명히 문제이다"라며 그 목적 또한 공

적이 것이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이번 사태는 직권남용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운성(공과·정보통신 14) 씨는 "우선 처음 그 문자를 받았을 때 당황스러웠다"며 "사생들이 개인정보를 학교 측에 제공한 것은 사적으로 이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아닌데 기숙사 사감이 사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그것을 남용해 사생들에게 문자까지 보낸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리액션의 대응

박 사감이 본인의 실수를 수감하고 곧바로 사과했지만 사생들의 원성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다. 글캠 총학생회 리액션은 사건 발생 당일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를 소집해 이번 사태와 관련된 결의안을 공포했다.

이번 총학생회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흡스돔(Hufsdorm) 박 사감에 대한 해임 요구사항 대표들로 구성된 박 사감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진상조사위원회와 학교 당국, 그리고 사법기관의 공조를 통한 사태의 객관적 조사요구이다. 이에 글캠 중운위는 총학생회 소속 2명·글로벌캠퍼스 단과대학 한 명씩 총 7명·동아리 연합회 소속 1명·외부 인사 1명 등 총 11명으로 된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해당 공고문에서 이번 사태의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달 23일 리액션은 결의안을 공포한 이후 우리학교 행정지원처의 인사혁신팀에 물의를 일으킨 해당 사감의 해임 요구안을 발송했다. 해임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글캠 제40대 총학생회와 중운위는 이번에 벌어진 학생들의 개인정보 무단 도용 문제에 분노하며, 책임자의 책임을 강력히 바란다는 것이었다.

한편 사생들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해 학교에 큰 논란을 가져온 박 사감은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문자를 보낸 당일 흡스돔 학사운영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 ◆학교 기숙사 관리팀의 입장

박 사감이 사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뒤 사생들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관해 고종식 흡스돔 학사운영팀 과장(이하 고 과장)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고 과장과 진행한 서면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Q1. 박 사감은 언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사생들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기숙사 합불 여부 등)를 알게 된 것인가요?**

고 과장: 지난해 2학기 보충금 환불과 관련해 계좌오류 확인을 위한 정보를 개인의 일탈행위에 이용한 것입니다.

**Q2. 사생들의 개인정보를 기숙사 사감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열람 가능한가요? 열람이 가능하다면 권한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고 과장: 직원 정규 업무시간(학기 중 평일 기준 9:30~17:30)중에는 학사 운영팀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합니다. 다만 사생이나 학부모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평일 야간과 주말에 전화해 행정사항에 대한 문의나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감들은 야간에 발생 가능한 긴급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야간에 근무하는 사감들에게 사생들의 개인정보가 있는 파일의 접근을 어느 정도 허락하고 있습니다. 사감의 주 업무가 '사생 기숙사 생활관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Q3.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직후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인 리액션이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결의안을 공포했습니다. 사건 이후 기숙사 관리팀의 대응과 진행사항을 설명해주세요.**

고 과장: 학사운영팀에서 박 사감의 잘못을 지적하자 박 사감은 본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잘못을 인정했으며 본인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한 날로 수리됐고 개인정보 추가유출 여부 확인 후 학사장 주관으로 학사운영팀 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Q4. 박 사감의 정확한 해고 사유는 무엇인가요?**

고 과장: 사건 당일 본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을 희망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 사직에 관련된 행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Q5. 이번 일로 사생들의 불만과 걱정이 컸습니다. 기숙사 관리팀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있나요?**

고 과장: 개인정보 내부관리지침 교육 강화를 위해 이미 두 차례의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숙사 내△행정직원△사감△경비△청소 용역△외부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Q6. 추가로 17년도 1학기, 그리고 18년도 1학기에 기숙사 예비번호를 받은 사생들이 모현 부동산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모현 인근 부동산 업체들에 기숙사 합불 여부를 알려준 적이 있나요?**

고 과장: 아닙니다. 사생들의 개인정보를 부동산 업체에게 넘기는 건 상당히 큰 범죄행위입니다. 이는 교직원을 그만두는 것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일 사생들의 개인정보를 실제 부동산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제공자는 형사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교직원이나 이러한 행위를 감행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숙사 교직원들 입장에서도 부동산업자들과 결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Q7. 마지막으로 사생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고 과장: 기숙사 홈페이지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생들에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감 관리 또한 학사운영팀의 관할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생들의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된 매뉴얼을 사감이나 직원들에게 더욱 강조하고 사생들의 개인정보 관리를 내부적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HUFS Dorm 학사운영팀에는 금일 2월 23일 근무 중인 P사감이 지난 학기 기숙사에 거주한 일부 학생들에게 단체로 보낸 개인 모바일 메시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과를 드립니다.

-아 래-

단체 메시지 학생 명단 및 연락처는 지난 2학기 보충금 반환 문자를 보내기 위한 과정에서 기숙사 운영팀을 통하여 업무적으로 확보한 자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적인 일로 확보한 학생 개인 정보 사항을 P사감 개인 특정 종교 선교를 목적으로 결재보고 계통을 통하지 않고 독단으로 발송한 사실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학사운영팀에는 P사감의 잘못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P사감은 해당 사항을 심각성을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당일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학사운영팀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건 재발 방지를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해당 학생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2019년 2월 23일

HUFS Dorm 학사장



「3.1 독립선언서」를 세계민방에 고하다!



김은정 교수
우리학교 외국문학
연구소 HK교수

吾等은茲에我朝鮮의獨立
國임과朝鮮人の自主民
을宣言하노라. 此로써世
界萬邦에告하야人類平等
의大義를克明하며此로써

子孫萬代에誥하야民族自存의正權을 永有케하노라.
半萬年歷史의權威를仗하야此를宣言함이며二千萬民衆의誠忠을음하야此
를佈明함이며民族의恒久如一한自由發展을爲하야此를主張함이며人類
의良心의發露에基因한世界改造の大機運에順應并進하기爲하야此를提起함
이니是 | 天의明命이며時代の大勢 | 며全人類共存共生權의正當한發動이
라天下何物이던지此를沮止抑制치 못할지니라.

舊時代의 遺物인 侵略主義, 強權主義의 犧牲을 作하야 有史以來 累千年에
처음으로 異民族箝制의 痛苦를 嘗한지 今에 十年을 過한지라 我 生存權의
剝奪됨이 무릇 幾何 | 며 心靈上發展의 障礙됨이 무릇 幾何 | 며 民族의 尊榮
의 毀損됨이 무릇 幾何 | 며 新銳와 獨創으로써 世界文化의 大潮流에 寄與
補裨할 奇緣을 遺失함은 無幾何 | 노.

噫!舊來의抑鬱을宣暢하러하면時下의苦痛을擺脫하러하면將來의禍威를
芟除하러하면民族의良心과國家의廉義의壓縮銷殘을興奮伸張하러하면各
個人格의正當한發達을遂하러하면可憐한子弟에게苦恥의財産을遺與치안
이하러하면子子孫孫의永久完全한慶福을導迎하러하면最大急務가民族의
獨立을確實케함이니二千萬各個人마다方寸의刃을懷하고人類進性과時
代良心이正義의軍과 人道의干戈로써護衛하는今日吾人은進하야取하야何
強을推치못하러退하야作하야何志를展치못하러.

丙子修好條規以來時時種種의金石盟約을食하얏다하야日本의無信을罪하
려인하노라. 學者는講壇에서政治家는實際에서我 祖宗世業을植地地視하
고 我 文化民族을 土味人遇하야 한갓 征服者의 快를 貪할뿐이오 我的 久遠
한 社會基礎와 卓犖한 民族心理를 無視한다 하야 日本의 少義함을 責하러
안이하노라. 自己를 策勵하기에 急한 吾人은 他的 怨尤를 暇치 못하노라. 現
在를 綢繆하기에 急한 吾人은 宿昔의 讐讐를 暇치 못하노라. 今日吾人의 所
任은 다만 自己의 建設이 有할뿐이오 決코 他的 破壞에 在치 안이하도다. 嚴
肅한 良心의 命令으로써 自家의 新運命을 開拓함이오 決코 舊怨과 一時의
感情으로써 他를 嫉逐排斥함이 안이하도다. 舊思想, 舊勢力에 羈縻된 日本 爲
政家의 功名의 犧牲이 된 不自然 又 不合理한 錯誤狀態를 改善匡正하야, 自
然 又 合理的 政經大原으로 歸還케 함이로다. 當初에 民族의 要求로서 出지
안인한 兩國併合의 結果가 畢竟 姑息의 威壓과 差別의 不平과 統計數字上虛
飾의 下에서 利害相反한 兩民族間에 永遠히 和同할 수 업는 怨溝를 去益深
造하는 今來 實積을 觀하라. 勇果果敢으로써 舊誤를 廓正하고 眞正한 理解
와 同情에 基本한 友好的新局面을 打開함은 彼此間遠禍召福하는 捷徑임을
明知할 것 안인가. 또 二千萬 含憤蓄怨의 民을 威力으로써 拘束함은 다만 東
洋의 永久한 平和를 保障하는 所以가 안일 뿐인이라. 此로 因하야 東洋安危
의 主軸인 四億萬支那人의 日本에 對한 危懼와 猜疑를 갈수록 濃厚케 하야
그 結果로 東洋全局이 共倒同亡의 悲運을 招致할 것이 마하니, 今日 吾人의
朝鮮獨立은 朝鮮人으로써 正當한 生榮을 遂케하는 同時에, 日本으로
하야금 邪路로서 出하야 東洋支持者인 重責을 全케 하는 것이며, 支那로 하
야금 夢寐에도 免하지 못하는 不安恐怖로서 脫出케 하는 것이며, 且나 東洋
平和로 重要한 一部를 삼는 世界平和人類幸福에 必要한 階段이 되게 하는
것이라이 었지 區區한 感情上問題 | 리오.

아아, 新天地가 眼前에 展開되도다. 威力의 時代가 去하고 道義의 時代가 來
하도다. 過去 全世紀에 鍊鍊長養된 人道의 精神이 巴야흐로 新文明의 曙光
을 人類의 歷史에 投射하기 始하도다. 新春이 世界에 來하야 萬物의 回蘇를
催促하는도다. 凍氷寒雪에 呼吸을 閉塞한 것이 彼一時의 勢 | 라 하면 和風
暖陽에 氣脈을 振舒함은 此一時의 勢 | 니. 天地의 復運에 際하고 世界의 變
潮를 乘한 吾人은 아모 躊躇할 것 업으며 아모 忌憚할 것 업도다. 我的 固有
한 自由權을 護守하야 生旺의 樂을 飽享할 것이며, 我的 自足한 獨創力을 發
揮하야 春滿한 大界에 民族의 精華를 結紐할지로다.

吾等이 茲에 奮起하도다. 良心이 我와 同存하며 眞理가 我와 并進하는도다.
男女老少업시 陰鬱한 古巢로서 活潑히 起來하야 萬彙羣象으로 더부러 欣快

한 復活을 成遂하게 되도다. 千百世 祖靈이 吾等を 陰佑하며 全世界 氣運이
吾等を 外護하야나 着手가 功 成功이라. 다만 前頭의 光明으로 奮進할 吾人
인더.

公約三章
一 今日 吾人의 此舉는 正義 人道 生存 尊榮을 爲하는 民族의 要求 | 니. 오
즉 自由의 精 神을 發揮할 것이오 決코 排他的 感情으로 逸走하지 말라.

一 最後의 一人까지 最後의 一刻까지 民族의 正當한 意思를 快히 發表하라.
一 一切의 行動은 가장 秩序를 尊重하야 吾人의 主張과 態度로 하야금 어대
까지던지 光明正大하게 하라.

孫秉熙 吉善甫 李弼柱 白龍成 金完圭 金秉祚 金昌俊 權東鎮 權秉惠 羅龍煥
羅仁協 梁燾伯 梁漢默 劉如大 李甲成 李明龍 李昇薰 李鍾勳 李鍾一 林禮煥
朴準承 朴熙道 朴東完 申洪植 申錫九 吳世昌 吳華英 鄭春洙 崔聖模 崔 麟
韓龍雲 洪秉箕 洪其兆.

선언서(현대어)
김은정(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HK교수) 옮김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적인 백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려 인류 평등에 대의를 분명히 밝히며, 이로써 자
손만대에 알려 민족의 독자적 생존에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한다. 만
만년 역사의 권위에 의지하여 이를 선언함이며, 이전만 민중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두루 퍼서 밝힘이며,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함이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바탕한 세계 개조의 큰 기회와 시
운(時運)에 맞추어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문제를 제기하니, 이는 하늘의
지시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전 인류 공동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므로 천
하의 어떤 것이라도 이를 저지하고 억제하지 못할 것이다.

구시대(舊時代)의 유물인 침략주의 ·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유사 이래로 몇
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의 억누름에 아프고 괴로움을 당한 지 이미 십
년이지났으니, 그동안 우리의 생존권에서 빼앗겨 잃은 것이 그 얼마이며, 의
식적 발전에 방해가 된 것이 그 얼마이며, 민족의 존엄과 명예에서 손상을 입
은 것이 그 얼마이며, 빼어난 참신성과 독창력으로 세계 문화의 흐름에 이바
지하고 보낼 기회를 잃은 것이 그 얼마이겠는가.

아! 오래 전의 억울함을 떨쳐내려면, 눈앞의 고통을 헤쳐 벗어나려면, 장래
의 위협을 없애려면, 짓눌리고 위축되고 사그라진 민족의 양심(良心)과 국가
의 체면과 도의를 떨쳐 일으키고 떨쳐 내려면, 각각(各各)의 인격을 정당하
게 발전시키려면, 가엾은 아들딸들에게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않으려
면 자자손손에게 연구하고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안겨주려면, 가장 크고 시
급한 일이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이전만 개개인 마음속에
갈을 품고, 인류의 보편성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라는 군사(軍事)와 인도(人道)라는
무기(武器)로 도와주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나아가 취하야는 강자(強者)인들
껴지 못하겠으며, 물러나 일을 피함에 무슨 뜻인들 퍼지 못하겠는가.

방자수호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맹약(盟約)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배
신을 발주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현실에서
우리 옛 왕조 대대로 물려 내려온 생업(生業)을 식민지의 것으로 간주하고,
문화 민족인 우리를 아만인으로 바라보며 다만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
요, 우리의 오래된 사회적 기초와 뛰어난 민족의 심성(心性)을 무시한다 해
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재적질하고 격려
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다. 현재를 빈틈없이 꼼꼼하게 준
비하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잘못을 가릴 겨를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다만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에 있을 뿐이요, 그것
은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자
신의 새 운명을 개척해 나갈 뿐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을 가지고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려는 것도 아니다. 구사상(舊思想)과 구세력(舊勢力)
에 얽매어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에 희생된 부자연스러움과 불합리함

에 빠진 어그러진 상태를 바로잡아 고쳐서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올바르고
멋뻐한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고자 함이다. 당초에 민족적 요구에
서 나온 것이 아니었던 두 나라의 합방이었으므로 그 결과가 마침내 고식적
(姑息的) 위안과, 차별적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의 아래에서 서
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함께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렁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오늘의 실정을 보라. 날래고 밝은 과감성으로 오래된 잘못
을 널리 바로잡아 고치고, 참된 이해와 동정(同情)에 그 기초를 둔 후회적인
새로운 국면을 타개하는 것이 서로 간에 화를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이는 지
름같은 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또 원한과 분노에 쌓인 이전
만 민족을 위력(威力)으로 구속하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
는 길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동양의 안전과 위태로움을 좌우하는 주
축인 4억 중국인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두려움과 시새움을 갈수록 심하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 전체가 함께 넘어져 망하는 비참한 운명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니,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
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지
지하는 자의 중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며, 중국인으로 하여금
꿈에도 잊지 못할 불안함과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써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필요한 단계가 되
게 하는 것이다.

이 어찌 사소한 감정상의 문제가겠는가. 아,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도
다. 위력의 시대가 가고 도의(道義)의 시대가 왔도다. 전 세기(世紀)에 걸쳐
연마(研磨)하고 오랫동안 키운 인도적(人道的) 정신이 이제 막 새 문명의 서
광을 인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였다. 새봄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이
되살아나기를 재촉하고 있다. 후독한 추위가 사람의 숨을 막아 끔찍 못 하게
한 것이 저 지난 시대의 형세라 하면, 화창한 봄비림과 따뜻한 햇볕에 원기와
혈맥을 떨쳐 펼치는 것은 이 시대의 형세이니, 천지에 돌아온 운수(運數)에
접하고 세계의 새로 바뀐 조류를 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으며 아무 거
리낄 것도 없다.

우리의 고유한 자유의 권리를 온전히 지켜 왕성한 생명의 즐거움을 실컷 누
릴 것이며, 우리의 풍부한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천지에 순수하
고 빛나는 민족 문화를 맺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떨쳐 일어날 것이다. 양
심이 우리를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를 함께 나아갈 것이다. 남녘노소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보금자리로부터 활활히 일어나 삼라만상과 함께 기쁘고
유쾌한 부활을 이루어낼 것이다. 먼 조상의 신령(神靈)이 보이지 않는 가운
데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앞길의 광명을 향하여 힘차게 곧장 나아갈 뿐이다.

공약3장
하나,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擧事)는 정의, 인도(人道)와 생존과 영광을 위한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에
빠져 정도(正道)에서 벗어나지 말라.

하나,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意思)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가장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멋뻐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되는 해 3월 초하루, 조선 민족 대표:
손병희 김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원규
김병호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호 양순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홍식 신석규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 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기록과 사진으로 보는
외대사

1972년 1월 25일,
대학 역사·문화·기억의 보고,
세계민속박물관이 개관하다.



▲ 세계민속자료실이 개관했던 학생회관(現 법학관)



▲ 외국어교육연구소 후원 - 제2회 전국 대학생 외국
어 학력경시대회 시상식(1982.5.29)



▲ 외국어교육연구소 학술지 - 외국어교육연구

전 세계의 언어와 지식 정보를 교수·연구하는 우리학교
는 자연스럽게 세계 각국의 문화에도 큰 관심을 가져왔다.
문화권을 넘나드는 관계망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상호존
중 정신에 입각해, 각국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깊이 이해하
기 위해 반세기 전부터 세계 민속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
기 시작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세계 민속자료실이 탄생했
다. 이는 타 대학과 차별화된 우리학교만의 전 세계 네트워
크를 기반으로 각국 민속자료 수집, 전시함으로써 세계 각
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국제 문화 교류 증
진을 확대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1972년 1월 25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옛 학생회관 건
물(현재의 법학관 자리) 뒤편 사법고시관 2층에서 세계민
속자료실로 시작한 박물관은 현재 리모텔링 중인 도서관
이 1978년 10월 20일 신축·개관함에 따라 4층으로 이전
했다. 보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1991년 8월 2일 글로벌캠
퍼스 도서관으로 이전에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2007년부터
는 세계민속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박물관 △수
집△정리△보존하는 등 박물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며
정식 박물관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세계민속박물관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민속자료
를 수집, 전시해 세계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 속 한국 문화를
비교, 고찰하는 복합 문화 공간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현
재 △토기류△자기류△서화류△민속류 등 약 3,000여 점
의 박물관을 소장하고 있다.

세계민속박물관은 산하에 설립된 역사관을 통해 교내외
에서 생산되는 대학 역사와 행정 기록 관리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2009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역사관은 우리학교
내 각종 △기구△단체△구성원들이 활동한 증거이다. 대

학 공동체의 공적 자산인 기록 유산을 안전하게 관리·보
존해 우리학교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복원하고,
행정 및 학술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 역시 담당하고 있다.

2011년 9월 Minerva Complex 지하캠퍼스 개장과 함께
문을 연 역사(전시)관은 우리학교 구성원들이 생산한 대학
역사·문화 관련 기록물을 정리해 상설 및 기획 전시를 운
영하고 있다. 외대 최초 건물인 구본관(1957년 준공)을 특
수 공법으로 리모델링해 보존한 건물 3층에 위치한 역사관
은 지난 65년간 우리학교의 역사를 온몸으로 지켜온 이
름 그대로 우리학교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관의 가장 큰 사명 중 하나는 역사 편찬이다. 지난
2014년에는 개교 60주년을 기념해 대학의 정사인 《한국
외국어대학교 60년사》를 편찬했다. 최근에는 대학의 역
사를 일반 대중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야기로 구성한
《HUFFS' tory-외대, 세계를 품다》파내기도 했다. 역사관은
동문과 교직원 등 원로 구성원들과의 구술 인터뷰도 지속
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외대인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비전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계획이다.

‘우리학교만의 외국어, 외국학 교육 노하우를 활용해 세
계 문화를 매개로 한 통합 정보센터의 역할을 할 세계민속
박물관’과 기록과 기억을 매개로 우리학교의 미래 비전을
열어갈 ‘역사관’은 앞으로도 대학의 교육 이념과 특성에 부
합하는 복합 지식정보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다.

# 장학금 지급 지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달 27일 우리학교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 에브리타임(이하 에타) 서울캠퍼스 자유게시판에 '조교들이여 연대하라!'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은 학교 측에 조교 장학금 지급 지연을 항의하는 내용이었다. 글이 게시된 후 성적 장학금, 근로 장학금 등 장학금 지급 지연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어떤 장학금이 얼마나 지연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과 학교의 입장을 들어보자.

## ◆장학금 지급 지연에 대한 구체적 내용

처음 장학금 지급 지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는 '학사조교 장학금 사건'이다. 학사조교 장학금은 매해 5월8월11월12월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난달 지급 예정이었던 장학금이 이번 달 초까지 지급되지 않았다.

에타에 조교 장학금 관련 글을 게시한 학생은 "조교 장학금 지급 담당부서인 교무행정팀에 문의했더니 결재서류는 이미 총장실로 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결재가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하면 총장실에 직접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총장실에 문의해 총장비서와 연락이 닿았으나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와 지급 예정일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장학금 지급 지연은 조교 장학금뿐만 아니었다. 교내 장학금 중에서도 △학생자치 장학금 △근로 장학금 △성적 장학금 등이 지연된 적이 있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제보자는 "학생자치 장학금을 제 기간에 받지 못해 학교에 문의했고 학교 측은 지급 예정일을 밝혔으나 통보받은 날짜보다 더 늦게 받았다"고 전했다. 성적 장학금 역시 마찬가지였다. 또 다른 익명의 제보자는 "성적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서 지급받는 성적 장학금 금액이 감면돼 나와야 하지만 감면이 안 된 채 등록금을 납부했다"며 "구체적인 이유도 모르고 개강 후 한 달이 지나서야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장학금이 등록금에서 감면되지 않고 추후에 지급될 경우 해당 학생에게 △지연된 상황 △지연이유 △장학금이 입금될 정확한 날짜를 개별 연락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해 1월 18일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된 전공탐색프로그램 발표자들 또한 받아야 할 비용이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발표자는 "1월에 활동을 진행했으나 2월 말이 돼서야 수당을 받았다"며 "수당 지급일을 확실히 명시해 주지도 않아서 계속 기다리지만 했다"고 전했다. 학과 프로그램의 장학금이 늦어져 불편을 겪은 학생도 있었다. 박민제(통번역·마인어 17) 씨는 "학교 측이 학과 하계연수를 다녀온 비용 중 70만 원을 돌려준다고 했지만 연수를 다녀오고 6개월이나 지나서야 돌려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애초에 언제 장학금이 입금된다고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기다리게 한 학교 측 대처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동현(통번역·일본어 17) 씨는 "장학금은 누군가에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며 "학교 측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학교 측도 내부 사정 등 사유가 있겠지만 일방적인 장학금 지급 지연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장학금에 관한 공지나 알림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장학금 지급에 대해 학교가 밝힌 사실

서울캠퍼스의 조교장학금 담당부서 교무행정팀의 백준훈 팀장은 "교무행정팀 관련 장학금 지급 지연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해 2월엔 학교가 재정적으로 바쁜 시기였다 보니 전체적으로 업무가 밀렸던 거 같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앞으로 장학금 지급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적 프로세스를 확실히 다지겠다"고 전했다.

글로벌캠퍼스의 장학금을 담당하는 학생지원팀(이하 글캠 학생지원팀)의 박은주 대리는 "글로벌캠퍼스는 장학금 지급이 지연된 적이 없을 것이다"라며 "학교가 조직 체제로 이뤄져있어 지급이 하루 이를 변동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장학금이 지급될 때 항상 장학금 지급 예정일이 공지 된다"며 "지급 예정일이 명시되지 않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성적 장학금에 대해선 선(先) 감면이 원칙이지만 과 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학과 추천서가 마무리되는 시점과 예외기준에 따라 달라진다"며 "선 감면이 안 될 시엔 개강 후 한 달 전까지 계좌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경호 글캠 학생지원팀 팀장은 "면학 장학금은 소득분위 산정 후 지급되므로 소득분위가 늦게 산정 될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현숙 서울캠퍼스 학생지원팀 팀장은 "국가근로 장학금이 지연된 이유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재정을 받아 학생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성적 장학금이나 면학 장학금은 학과에 따라 선 감면과 추후 계좌지급으로 상이하게 적용된다"며 "민약 선 감면이 안됐더라도 이는 장학금 지연 사례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덧붙여 "이번에 사전 공지 없이 장학금이 지연된 것은 학교의 잘못임을 인정한다"며 학교 측의 실수를 시인했고 사전 공지 의무성을 밝혔다.

##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박은주 글캠 학생지원팀 대리는 "장학금이 지연되면 학교 측에서 사전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며 "장학생들의 모든 장학금이 지연된다면 공지사항에 올릴 수 있지만 소수 학생의 장학금이 지연되는 경우는 별도의 공지가 어렵다"고 학생들의 양해를 구했다.

김현숙 서울캠퍼스 학생지원팀 팀장은 "앞으로 공지된 지급 예정일에 장학금이 지급되지 못한다면 사전에 반드시 문자, 이메일 등을 이용해 지급 예정일을 공지하겠다"며 "학교개발팀과 상의해 학생들에게 신속하게 공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고려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학생들 또한 학생종합 시스템 내에 △이름 △이메일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최신 정보로 입력해주면 장학금이 더욱 원활하게 지급될 것 같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장학팀 팀장은 "학교-학생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해에 장학팀이 개설됐다"며 "항상 학생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장학금 지연, 타 학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우리학교와 달리 타 학교는 장학금 지급 지연에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번 해 1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과기대)에선 창업 마일리지 장학금이 지연됐다. 과기대는 학교 홈페이지 장학금지 게시판에 장학금 지급 지연에 대한 안내 글을 게시했다. 학교 측은 "12월 말에 지급 예정이었던 장학금이 증빙서류 검토 및 내부결재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다"며 정확한 사유를 밝혔다. 이어 "글 작성일 기준 일주일 후에 지급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지급 예정일까지 학생들에게 전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이하 동방예대)는 학교 홈페이지에 국가장학금이 지연됨을 공지했다. 동방예대 학생복지팀이 작성한 공지 글엔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예정 시기까지 포함돼 있다. 또한 지연된 장학금 지급일정이 확정된다면 별도 공지할 계획이라고 알려 학생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했다. 한소희(국제지역·러시아 18) 씨는 "지급 지연에 대한 타 학교의 확실하고 조속한 대처를 도입해 우리학교도 원활한 학생들과의 소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은지 기자 97eun\_g@hufs.ac.kr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2019학년도 후기 석사/박사/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 1. 2019학년도 후기 입시전형 일정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시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예치금)
특별전형	2019. 4. 1(월)~ 4. 5(금)	4. 27(토) 10:00	5. 9(목) 14:00	5. 13(월)~ 5. 17(금)
일반전형	2019. 5. 7(화)~ 5. 13(월)	6. 1(토) 10:00	6. 13(목) 14:00	6. 17(월)~ 6. 21(금)

####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9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 2) 박사: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9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나. 일반전형

-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9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인 자
- 2) 박사: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9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

※ 참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 지원자격상에 평점 평균 제한이 있는 점이 다르며 기타사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상에 일정한 평점 평균 제한이 있으며, 일반전형은 평점 평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기적으로 특별전형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일반전형을 실시합니다.

#### 3. 모집학과

석사과정 50개 학과, 박사과정 45개 학과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 4. 접수방법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방문 등)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함.

####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면접)

####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 7. 기타사항

가.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혜택  
 나.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다. 기타 본교 도서관 및 시설 이용

####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a](http://www.hufs.ac.kr/gra) 및 모집요강 참조

#### 9.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일반대학원)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이후의 향방

지난달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지난해 6월 진행됐던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1년도 안 돼 성사된 만남이었기에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회담은 결렬됐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 각국의 입장△회담이 결렬된 이유△이후의 향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과정과 목적

이번 해 1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시 김 위원장은 “안전한 비핵화로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목표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다”라고 밝혔다. 이어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하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자신의 트위터에 “나도 북한이 위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잘 깨닫고 있는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라는 글을 기재했다. 이어 김 위원장으로부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요청하는 친서를 받았다고 밝히며 두 국가 사이 회담 개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유치 장소로 △태국 방콕△베트남 하노이△미국 하와이 등 여러 후보지가 거론되던 중 베트남 하노이가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베트남은 미국과 적대관계에서 우방국이 됐다는 역사적 상징성을 지녔으며 과거 자국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유치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지난 달 27부터 28일까지 진행됐으며 북한은 제재 해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적으로 회담에 참석했다..

##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유

회담은 합의문을 발표하지 않은 채 결렬됐다. 이에 여러 외신들은 결렬 사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

첫 번째 이유는 양국이 주장하는 비핵화 방식의 차이였다. 지난 3일 미국 언론사인 폭스 뉴스(Fox New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당시 북한 측에 ‘빅딜(Big deal)\*’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스몰딜’을 원했다고 전했다.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전면적인 관계 개선인 반면 김 위원장이 원했던 것은 단계적인 비핵화와 관계 개선, 즉 스몰딜이었다.

존 볼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이하 볼턴 보좌관)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은 매우 제한적인 양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빅딜을 수용하도록 설득했지만 그들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볼턴 보좌관은 “이번 회담의 결렬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안전한 비핵화를 이루지 못하느니 차라리 회담을 결렬시키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이유는 북한이 영변 외에도 숨겨놓은 핵시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국제안보연구소는 지난해 5월 평안도 강선에 핵시설을 언급했고 ‘더 디플로맷(The Diplomat)’ 역시 강선 지역의 위성사진과 함께 이 지역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원심분리기 수천 대가 가동 중이라고 추정했다.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영변 외의 다른 핵시설 역시 폐기할 것을 제시했다. 영변의 핵시설 폐기만을 협상 조건으로 내놓았던 북한은 미국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었고 협상은 결렬됐다. 하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핵과 미사일 목록을 계속 요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빅딜: 빅딜은 ‘엄지 큰 거래’라는 함성어로 원래는 경제 위기 속 출범한 정부가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간에 대형 사업을 맞바꾼다는 경제용어이다. 정치적 상황에서 빅딜을 제안했다는 것은 합의를 위해 큰 조건들을 내걸고 요구했다는 의미이다.

##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미국의 입장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게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비핵화를 원했다. 북한의 숨겨진 핵시설을 숨기고 이 사실을 아는 미국은 영변 핵시설의 폐쇄와 더불어 다른 핵 시설도 폐쇄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대한 일부 제재를 풀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북한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이 요구한 5건의 제재 해제 요구는 모든 제재를 풀어달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회담 이후 자국으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기자회견에 참석해 “북한 내 특정 지역 시설 비핵화 요구에 대해 김 위원장의 동의를 구할 수 없었다”며 “이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는 질문에 “이미

제재는 강력한 상황”이라며 “북한 주민들도 생계를 이어가야 하고 자신 또한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며 더 이상의 추가적 제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CVID: CVID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의미한다.

## ◆북한의 반박 의견

지난 1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는 미국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북한은 제재 일부 해제를 원한다”며 “유엔 제재 결의 11건 중 5건(사진 첨부 예정)만 해제 요구했고 이는 민주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반박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안전 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군사 분야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직은 부담스러울 것이라 생각해 부분적 제재 해제를 제안한 것”이라며 “안보리 제재 5건도 전부가 아닌 군수용을 제외한 민수·민생용만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우리나라의 입장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며 “특히 두 정상 사이에서 연락사무소\*의 설치까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낼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로부터 3일 뒤인 3월 4일 청와대에서 NSC(National Security Council)\*가 열렸다. 이어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며 “제재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NSC는 우리말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라는 뜻으로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등 8명의 구성원이 참여해 △통일△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정책을 조율하는 회의이다.

\*연락 사무소: 아직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 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전단계로 상호간에 설치하는 사무소를 뜻한다.

### 북한이 해제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결의 2270호 (채택 시기: 2016년 3월)  
북한의 석탄·철·철광 수출 원칙적 금지(민생 목적 제외)

결의 2321호(2016년 11월)  
북한의 석탄 수출 통제 강화 (한도는 연간 거래 대금 4억87만달러 또는 거래량 750만t)

결의 2371호(2017년 8월)  
북한의 석탄·철·철광 수출 전면 금지

결의 2375호(2017년 9월)  
대북 유류 공급 30% 감축, 대북 투자·합작 사업 원칙적 금지

결의 2397호(2017년 12월)  
대북 정유 제품 공급량 연간 50만배럴로 감축, 해외 파견 노동자 24개월 내 송환

▲북한이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출처: 중앙일보)

안소현 기자 97sonia@hufs.ac.kr

우리학교 동아리를 찾아라!

# 흡 소 사 이 어 티

헤르메스는 23년이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축구 동아리다. 다양한 축구 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탄탄한 실력은 물론 동아리 회원들 사이 끈끈한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도 백년관 앞 잔디 구장을 누비는 헤르메스를 알아보고자 회장 허원재(국제지역·아프리카·15)씨를 만났다.

Q1. 이번 해 헤르메스 동아리를 회장이 되셨습니까. 헤르메스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가요?

지난 학기엔 헤르메스 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무거운 이미지와 달리 화목한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지난 학기 회장이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준 덕분에 모든 회원이 서로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해에 회장으로서 지난 학기처럼 즐거운 동아리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그 이상으로 좋게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제 계획입니다. 회장이란 직책을 맡은 적이 처음이라 걱정이 앞서지만, 저만의 방식으로 회원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2. 이번 해 목표로 하는 대회가 있나요?

한 학기에 한 번씩, 일 년에 총 두 번 경기권 대학 축구연맹이 주최하는 GUFACUP(이하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용인대학교△인하대학교 등 체육대학교 출신 강팀들이 출전한 대회가기에 저희 역시 꾸준한 훈련을 거치며 우수한 회원



을 선발해 대회에 나설 것입니다. 물론 저희 팀이 다른 팀들보다 현실적으로 기량 측면에서는 열세입니다. 하지만 목표는 항상 높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우승입니다.

\*GUFAC(Gyeonggi Area University Football Club Association) : 경기권 대학 축구 동아리 연맹.

Q3. 동아리 이미지가 종종 딱딱하게 비춰진다는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남학생들만 활동하는 운동 동아리다 보니 다소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축구라는 운동의 특성상 경기 중 서로 화도 내고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헤르메스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좀

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즐기는 분위기에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중에 발생한 다툼은 운동장에서 풀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서로 쌓아둔 감정을 풀기도 합니다. 앞으로 동아리의 분위기가 딱딱하다는 오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저와 부원들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Q4. 지난 학기에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과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지난 학기 마지막 정기축구가 끝난 후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 학기 동안 회장을 맡았던 형이 졸업하면서 종강총회 형식으로 회원들 모두가 마지막을 기념했는데 그날이 가장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은 잘하고 싶은 마



음이 앞서 회원들에게 짜증을 냈던 순간입니다. 경기에서 이기고 싶었거든요. (웃음) 그다음으로는 시험 기간인 것 같습니다. 축구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때문에 도서관에 앉아있었습니다. 선불리 운동장에 나가지 못하겠다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Q5. 동아리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장으로서 회원들이 저를 잘 따라주길 바라면서도 이를 만드는 것은 저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 동안 밝고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축구 잘하는 헤르메스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잘 부탁드립니다.

최재영 기자 98wodud@hufs.ac.kr

# 블록체인 기반 미디어 거래 유통 표준 선정

지난달 우리학교는 박춘원 우리학교 일반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겸임교수가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미디어 거래 및 유통을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안이 한국정보통신기술 협회(이하 ITTA) 승인을 거쳐 정보통신산업 표준으로 제정됐다고 전했다. 이 표준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거래 시 필수 요소와 스마

트계약 체결에 필요한 표준 항목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국제적 메가트렌드를 선도하는 블록체인 기반 미디어 거래 유통 표준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아보고자 박춘원 우리 학교 교수를 만나봤다.

박춘원 우리학교 일반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겸임교수

## Q1. 블록체인은 무엇이고 이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중심 기술로 각광받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로는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Big Data) 등이 있습니다. 이 기술들이 보편화되면 △초연결 사회△데이터 중심 사회△공유 경제△스마트 공장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변화는 큰 편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초연결 사회의 중앙 시스템을 장악하는 '빅 브라더'의 등장, 사용자의 모든 행동이 데이터화 돼 제3자가 이를 악용하는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침해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모든 위험 요소는 결국 데이터 신뢰 상실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데이터 신뢰 문제의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첫째, 분산 원장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 데이터 위·변조가 어려워 보안성이 뛰어납니다.

둘째, 거래 데이터가 모두 노출되고 추적이 가능해 데이터 투명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기존 서비스들의 중앙 집권적 체제를 대체해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발생하는 여러 폐해의 위험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의 폐해를 방지·억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 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기술로 파악됩니다.

물론 블록체인 기술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첫째, 기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반 기술에 비해 블록 생성 및 거래 처리 연결 속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둘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엔 부의 편중 문제로 발생하는 '자기지속성(Self-sustainability)'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나는 투기 현상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기술 발전 초기 단계에서 늘 등장하던 것으로 기술 진보와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은 단점보다 더 많은 장점이 있어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여러 사물에 정보 통신 기술이 융합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 받는 기술

\*분산원장시스템: 수많은 사적 거래 정보를 개별적 데이터 블록으로 만들고 이를 체인처럼 차례로 연결하며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노드(node)\*에 복제해 분산 보관하는 블록체인 기술

\*노드(node): 네트워크상의 연결 포인트 혹은 데이터 전송의 종점이나 부분배점

## Q2. 미디어 블록체인 형성을 위한 기술적·정책적 환경은 무엇인가요?

블록체인에 기반 미디어 서비스를 구축할 때 기술과 정책 측면에서 많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은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기존 중앙집중형 데이터베이스 방식에 비해 데이터 처리 성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 성능을 제고 하기 위해 블록의 크기 제한을 비롯한 여러 복잡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기술은 동영상처럼 대용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기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반의 미디어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미디어는 대용량 비디오 전송 성능을 보장하는 지역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Local Content Distribution Network) 환경 구축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단말 간 직접 통신(P2P: Peer to Peer Delivery Network)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책 측면에선 스팀잇(Steemit)\*과 마친가지로 디튜브(Dtube)\*가 출범하

면서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미디어로서 내건 4가지 대표 문구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코인 인센티브를 통한 확실한 보상 시스템입니다. 사용자의 플랫폼 기여도에 따라 암호화폐로 보상을 제공합니다. 즉, △동영상 업로드△공유 △댓글 작성 등 사용자의 모든 행위는 블록체인 기술로 위·변조가 불가능합니다. 또 사용자는 플랫폼에 미치는 기여도에 비례해 코인을 받습니다.

둘째, 강제적 검열 시스템이 없습니다. 철저히 분산화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플랫폼이 동영상 내용을 검열하거나 지침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부적절한 콘텐츠 관리는 업로드·다운로드와 같은 사용자의 평가를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셋째, 플랫폼의 공정성입니다. 디튜브의 알고리즘은 특정 콘텐츠 노출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또한 누구나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넷째, 광고 청정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디튜브는 사용자 경험을 최대화하기 위해 플랫폼을 광고 없이 운영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코인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코인 경제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코인 경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국가가 통제하는 검열 기반 체계에서는 블록체인 미디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미디어 서비스의 기반이 토대가 커뮤니티의 자정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제약이 있다면 서비스의 자기 지속성 확보가 어렵고 사용자 유입이 쉽지 않아 서비스 활성화 자체가 힘들습니다. 정책 개선과 기술 진보가 병행돼야 합니다.

\*스팀잇(steemit): 네드 스카트와 댄 라이머가 2016년 4월 시작한 블록체인 미디어 플랫폼. 페이스북이나 네이버의 블로그처럼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를 올릴 수 있고 독자들이 그 콘텐츠가 마음에 들면 '업보트(upvote)'를 누른다. 제작자가 올린 콘텐츠에 업보트가 많을수록 더 많은 가상화폐를 보상으로 받는다.

\*디튜브(Dtube): Decentralize youTube의 약자로 글로벌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를 대체를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영상 플랫폼

## Q3. 어떤 경우에 미디어 산업에 블록체인이 결합되며, 그 예시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블록체인 기술△암호화폐△미디어가 서로 결합되며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미디어 서비스의 기본적인 특징은 'P2P(개인과 개인)'라는 블록체인의 네트워크 특성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던 거래의 매개 서비스가 사라진 형태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P2P 네트워크상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직접 연결돼 당사자 간 직거래가 이뤄진 형태로 미디어 서비스가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멜론 같은 중간 매개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수료가 없어지므로 상품을 소비자에게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더라도 오히려 판매자 수입은 늘어납니다.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조뮤직'을 들 수 있습니다. 우조뮤직은 스마트계약 기능으로, 2세대 블록체인의 대표주자로 유명한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앱(Decentralized Application)\*입니다. 우조뮤직에서 이더리움 암호화폐로 음원을 구입하면 그 금액은 스마트계약 기능에 의해 기존 중간 매개자에 대한 수수료 공제 없이 자동으로 △제작자△작곡가△작사가 등에게 배분됩니다.

이 외에도 △ '디지마르크' △ '디스토프' △ '뮐루' 와 같이 △복제 방지 워터마크 기술 제공△다양한 콘텐츠 거래△저작권 관리 등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시스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음악 분야 외 예술품 거래 분야에서도 △미술품의 가치를 증권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작품 소유권 일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메세나' △후원 기금을 조성해 예술가와 후원자를 1:1 연결해주는 '아트바이트' △개인 간 예술 작품 거래를 이어주는 '아트팩스' △예술작품 전시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아트코인펀드' 같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앱(Decentralized Application): 중앙에서 관리하는 중앙 서버가 없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 개인과 개인 형태로 작동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탈중앙화한 어플리케이션'의 줄임말이다.

## Q4.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표준이 갖는 의의 및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블록체인 기반 미디어 거래 및 유통을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 제정이 필요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응용 기술 영역은 인공지능이 주도하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 영역엔 블록체인 기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중심 생활양식 확산으로 쇼트 폼 비디오\*가 새로운 미디어 유통 단위로 등장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은 초기에 이 두 메가트렌드를 결합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쇼트 폼 비디오 거래 유통 시스템을 활용한 국제적인 미디어 거래 및 유통 표준을 선행 제정했습니다. 따라서 국제 표준 제정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한국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기반한 미디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본 표준엔 제가 새로운 동영상 패러다임을 설명하기 위해 최초로 고안한 용어인 타임드 데이터(Timed Data)\*와 'VADs (Video As Data service)'라는 용어가 반영됐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와 관련된 용어를 선점했다는 점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특정 기술 분야의 개념과 용어를 선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산업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이번 공적 표준 제정을 통해 이를 가능하게 한 첫 단추를 꿰는 점이 의의가 큼니다.

\*쇼트폼비디오(Short-form-video): 짧은 형식의 영상물

\*타임드 데이터(Timed Data): 동영상을 콘텐츠가 아닌 데이터 처리 관점으로 정의한 새로운 개념

## Q5. 이번 표준을 기반으로 한 한국 및 세계 미디어 산업의 전망 및 발전 방향은 어떤 것들이 궁금합니다.

기술 표준의 선점은 세계적으로 특정 산업 분야의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번 ITTA 산업 표준 제정을 계기로 ISO\*·IEC\*·307 위원회가 관장하는 블록체인 국제 표준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블록체인 기반 미디어 거래 및 유통 분야 국제 표준으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3년 내 제가 개발한 표준안이 국제적으로 제정되면 전 세계의 미디어 거래 및 유통 과정이 블록체인 기반 쇼트 폼 비디오 거래를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할 전망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새로운 개념의 동영상인 타임드 데이터 중심 차세대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인 브이에이디(VAD)서비스\* 관리 활용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과 서비스를 주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넥스트 유튜브(Next YouTube)' 시대를 선도할 수 있게 됨을 기대합니다.

\*ISO: 국제표준화기구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

\*브이에이디(VAD)서비스: 내용을 편집하지 않고 메타데이터만으로 서비스 및 재활용이 가능한 동영상 서비스



## 외대학보에 들어온 이유

중학교 때부터 미디어 관련 학과에 진학하고 싶으면서도 언론사에서 일할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촬영 장비를 들고 가수나 배우와 같은 연예인들을 촬영하려 뛰어들고 편집을 하느라 밤을 새우는 모습만 즐겼던 나는 외대학보에 들어온 이유를 돌아보고자 한다.

내가 학보사 기자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로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글쓰기 자체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우리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학년 학생이라면 꼭 들어야 하는 전공 필수 과목이 있다. 바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글쓰기(이하 미디어글쓰기)라는 과목이다. 미디어글쓰기 시간에는 주로 기사 쓰는 방법을 배운다. 수강생들은 스트레이트 기사뿐만 아니라 스퀘어, 피피티, 블로그 등 다양한 글쓰기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수업이 끝날 때쯤 교수님께서 매주 과제를 내주는데, 보도 자료를 읽고 1000자 이내로 기사를 쓰는 것이었다. 사실 이 과제가 귀찮게 느껴진 적도 많다. 주장 하나 없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재미없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다 수업시간 중 교수님의 말씀에 생각을 바꾸게 된 것 같다. 교수님은 “어떤 분야의 일을 하든 글쓰기는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글 쓰는 연습을 할 것을 강조하셨다. 이를 곱씹어본 나는 글쓰기가 모든 일의 밑바탕이 됨을 깨달았다. 이를 자각한 순간부터 글쓰기 과제에 열심히 임해 글쓰기에 흥미가 생겼다. 사실 과제에 투자한 시간에 비해 학점이 잘 나오진 않았다. 재수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쓰기라는 새로운 활동에 관심이 생겨 미디어글쓰기는 나에게 의미 있는 수업이 됐다. 두 번째 이유는 타 학과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2학기 동기가 아닌 다른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찰하담 변화동아리’에 가입했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동안 변화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타 학과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정말 재밌었다. 특히 나는 언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교환학생 이야기나 매우 인상 깊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은 언어를 배우지 않아 교환학생을 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이처럼 변화동아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좋았던 나는 더 많은 타 학과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외대학보에 들어오게 됐다.

방송 교육을 포함해 외대학보에서 활동한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사실 방송 교육을 했던 기간 동안 거의 주당 3번을 학교에 나와 힘들기도 했다. 심지어 매 교육 때마다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기사를 계속 작성해야 해서 지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일은 무척 즐거웠다. 방송교육 첫날, 학보사 사람들과 처음 어색하게 인사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두 달 전에 비해 학보사 기자들끼리도 매우 친해진 것 같다. 오늘은 6번의 마감 중 첫 번째 마감이 진행되는 날이다. 개강하기 일주일 전부터 학보사 기자로 활동할 생각에 긴장이 돼 마음을 계속 다지곤 했다. 남아있는 다섯 번의 마감과 함께 학보사 생활이 기대된다.



김나현 기자

## 수학공식처럼 자존감도 배울 수 있다면? -자존감수업-

점차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는 세상 속 나 자신을 찾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남과의 비교에 상처받고 어디에 의지할지 모르겠는 상황 때 문인지 서점에 가면 대부분의 베스트셀러가 ‘자존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존감은 자아효능감이라고 한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느끼는 감정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하루하루 급변하는 사회 속 사람들은 스스로가 그저 사회를 이루는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를 고려했을 때 자존감에 대한 관심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 일지 모른다.

이처럼 자존감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융화돼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영어, 수학 등 실용학문만 가르치려 든다. 정작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어떻게 내 감정을 바라보고 표현해야 하는지,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집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싶어 한다. 몸소 부딪혀 경험을 쌓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동안 우리 마음은 상처를 받아내릴대릴대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어릴 적부터 스스로 위와 같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한다. 저자 역시 스스로가 못나고 한심한 존재로 느껴져 우울했고 자신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청소년기의 심리는 저자가 심리와 정신에 관심을 갖게 했고 정신과의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그가 연구하고 공부한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자존감수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견디기 힘든 삶 속에서 혹은 복잡한 인간관계 속 이리 저리 치이며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속는 셈 치고 저자의 자존감수업을 한번 들어보자. 나 혼자만 고민하고 있던 게 아니라란 걸 알게 돼 따뜻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또 그가 제시해 주는 대로 열심히 ‘자존감 훈련’을 하다 보면, 못한 나 자신도 예뻐할 수 있고 거친 세상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멘탈 갑’으로 거듭날 것이다. 다양한 사례들과 솔루션을 차근차근 이해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처음엔 낯부끄럽고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저자가 안내하는 대로 하루하루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다보면 더 이상 나 자신을 상처 입히고 학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대민 기자 98bdaminc@hufs.ac.kr

##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 영화 서프러제트 우리가 이뤄낸 것에 대해

“우리는 범법자가 아니라 입법자가 되고 싶습니다” 달리는 말에 몸을 던져 목숨이 끊어져도 좋을 만큼 그들이 바랐고, 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다. ‘서프러제트’는 영국에서 참정권 운동을 했던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영화는 백 년 전 영국에서 벌어진 여성 투표권 쟁취 운동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영화 도입에 삽입된 연설 장면은 당시 사회가 여성을 어떤 시선으로 봤는지 노골적으로 나타낸다. ‘여성은 침착하지도 조화롭지도 못해서 정치적 판단이 어려우며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면 사회 구조가 무너진다.’ 비약적인 논리지만 백 년 전 그들에게 잔인한 현실이었다. 세탁 공장 노동자인 ‘모드’는 우연히 공장에 새로 들어온 서프러제트인 엘리스를 통해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 사이의 임금과 작업 환경 차이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한다. 이후 모드는 서프러제트와 어울렸다는 사실만으로 투표권 운동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주변의 낙인을 받게 됐고 이로 인해 결국 그의 가정은 깨져 버린다. 설상가상 그는 목숨보다 아꼈던 아들에 대한 양육권조차도 행사하지 못했다. 그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그가 참정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했다. 모드와 같은 여성들의 연대는 공장에서 발생한 성폭행을 촉매로 거리로 번졌고 그들은 무너진 정의와 인권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다.

사실 당대 여성들은 투표권을 얻기 위해 오랫동안 평화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철벽처럼 공고했던 남성의 권력에 가려지기 일쑤였다.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여성들은 결국 폭력으

로 그들의 의지를 드러낸다. 폭력이 당대 남성이 유일하게 이해하는 언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철벽을 무너뜨린 건 노랫소리가 아니라 불길이었다.

젠더 갈등이 고조되는 지금, 우리보다 앞섰던 그들을 다시금 새겨본다. 그때만큼 여성 차별이 극단적이고 만연하지 않지만 사회 어딘가 그 기저엔 아직 분명히 존재한다. 그때와 지금, 차별의 모습은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뿌리는 같다. 여성은 여성이기 이전에 인간이며 모든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가장 기본적인 관습과 전통이라는 벽에 가려져 잊고 있었던 다면 반드시 마주해야 할 사실이다. 오늘날 여성들의 ‘페미니즘’에 대해 혹자는 너무 ‘과격하다’고 비난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라 말한다. 다시 그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당신이 말하는 그 평화적인 방법을, 그동안 셀 수 없이 공허하게 울렸던 여성들의 외침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려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백 년 전 그때 그 남성들처럼 폭력만을 이해하려 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사회는 나아가야 한다. 한 곳에 머무르는 순간 썩어버리기 마련이다. 나아가는 과정에서 갈등과 충돌은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더 나은 사회로 향하는 과도(過渡)에 서 있다. 모든 여성이 한 인격체로서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받길 바란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이뤄왔고 또 이뤄야 한다. 피할 수 없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한다. 투쟁 없이 이뤄낸 자유는 없다.

안효빈 기자 97anhyobin@hufs.ac.kr



## 외대학보 독자위원회를 모집합니다

2019년 1학기 동안 외대학보를 비평해 주실 독자위원을 모집합니다.

- ◆ 활동내역 2019년 1학기 외대학보 1028~1033호 정독 후 비평문 작성 (총 5회, 개인 당 1~2회)
- ◆ 모집단위 서울캠퍼스 3명/ 글로벌캠퍼스 3명
- ◆ 모집기간 3월 19일(화)까지
- ◆ 지원방법 아래의 메일로 이름, 소속 캠퍼스와 전공, 자기소개 간단히 작성 후 제출  
글로벌캠퍼스 97sonia@hufs.ac.kr 서울캠퍼스 98nahuuuny@hufs.ac.kr
- ◆ 지원자격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학교 구성원
- ◆ 활동혜택 - 비평문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외대학보 독자위원 수료증 지급

독자위원이 써주신 비평문은 매 호 외대학보에 실립니다. 학보도 꼼꼼히 읽고 사람들과 만나 토론하고 싶은 지식인을 환영합니다.





# 삼일절 100주년, 그 의미를 찾아서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2019년은 1919년 만세운동으로부터 100년을 맞는 해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광복의 초석을 다졌으며 우리 민족이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기상을 얻었다. 이처럼 우리 역사에서 큰 의미가 있는 3·1운동을 기리기 위해 우리 정부는 3월 1일을 국경일로 제정해 기리고 있다. 그저 쉬는 날이라고 넘어가선 안 될 삼일절, 그 의미에 대해 되돌아보자.

### ◆삼일절

삼일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듯 삼일절은 1919년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경일로서 일제 강점기 당시 우리 선조들이 일본에 맞서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운동을 펼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1910년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점령하고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았다. 이후 우리나라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무차별적 무력을 수반한 무단통치를 감행했다. 무단통치하에 우리 국민들은 △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근대적 기본권을 박탈당했다. 더 나아가 일본인들의 불법적인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대적인 토지조사사업이 진행됐고 회사령 등 경제억압 정책을 펴 자본가의 성장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반병률 우리학교 사학과 교수(이하 반 교수는) “기존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이 서구 열강의 세력 다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3·1운동을 전후로 다양한 조약을 통해 독립을 약속받았으나 실질적으로 독립은 이뤄지지 않았고 △러일전쟁△보호국화△군대해산△합병△무단통치를 거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것이 조선을 돕기 위함이라고 말했지만, 조선의 번영은 오지 않았고 전 민족적 차별이 이뤄졌다. 1910년대 말 국제 정세가 변화의 국면에 들어선 것도 3·1운동 발생의 주요 배경이 됐다. 1918년 1월 윌슨 미국 대통령은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했다. 이는 민족의식을 지닌 한 집단이 독자적 국가를 형성하고 자신의 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당시 식민 지배를 받던 여러 나라의 약소민족들에 큰 용기를 줬고 결과적으로 민족 해방 운동을 고양했다. 이에 대해 반 교수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선언은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열강들의 참여는 활발하지 않았던 한계는 있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자주적 결정권을 되찾을 수



▲반병률 우리학교 사학과 교수

있던 희망을 주었다”며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와 국민들의 내적 해방 의지가 3·1운동의 결정적 배경”이라고 전했다.

### ◆삼일절의 의의

삼일절의 가장 대표적 의의는 우리 민족이 자주성을 되찾기 위해 일제의 압박에 항거했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 자주독립을 선언하기 위해 온 민족이 총궐기에 평화로운 시위를 전개했다. 이 운동은 1919년 5월까지 전국적으로 퍼졌고 전 세계에 우리 국민들의 독립 의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 한민족의 거족적인 3·1운동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대체로 동정적이었다. 많은 해외언론에서 우리나라의 3·1운동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와 교류했던 여러 나라는 일본의 야만성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내놨다. △중국 △미국 △프랑스 △영국 등 강대국들도 우리나라에 지지 의사를 표했다.

이처럼 3·1 많은 해외 우수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할 만큼 큰 화제가 됐고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기에 충분했다. 이 여파로 중국 상해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됐다. 결론적으로 3·1운동은 적극적 광복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국민적 관점에서도 독립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주권을 박탈하는 외부 세력을 향한 투쟁심을 고취하는 동기부여가 됐다. 또한 일제가 통치방식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 반 교수는 이에 대해 “3·1운동 당시 우리 민족이 결정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현대에도 다양한 정치적 문제를 직면할 때 열강들의 의견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보다 자주적으로 한반도 통일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3·1운동이 현대에 남긴 과제”라고 전했다.

또한 자주독립 사상에 대한 의지도 강해졌다. △독립선언서 △일본 정부에 보낸 통고문 △파리강화회의에 보낸 독립청원서 등에는 자주독립의 사상이 명시돼 있다. 또한



▲덕수궁 대한문 앞 만세시위 @독립기념관 제공

△자유평등△민주주의△애국△애족△인도주의를 곁들인 신사상의 출현 또한 3·1운동이 갖는 의의 중 하나다. 본인들의 권리를 되찾고 다시 우리의 열이 담긴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의식이 국민들 사이에 퍼졌다. 3·1운동이 포기하지 않고 더욱 저항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 결과 △교육△문예△산업활동 등의 발전을 위한 박차가 가해졌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 3·1운동 이전부터 실행돼 왔던 △노동자 파업운동△납세 거부 운동△물산장려운동△국산품애용 운동 등은 3.1운동 이후에도 계속돼 자주성을 가진 민족 고유의 기업을 설립하려는 운동으로까지 확대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내부적 원동력이 됐다.

### ◆삼일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삼일절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권과 자주성을 되찾기 위해 모두가 노력을 기울인 날이다. 3·1운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독립과 정부 수립을 위한 초석을 닦은 만큼 우리는 그 각고의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많은 학생과 약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로 나와 싸웠으며 부당한 국권 침탈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반 교수는 “3·1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에서 우리에게 생소한 활동가들도 기억해야 한다”며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열사분들을 기리는 동시에 당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노력했던 무명의 △학생△어린이△여성들도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대민 기자 98bdamin@hufs.ac.kr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 시민이 직접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입니다